영암군, '민물장어 브랜드화'…대표 먹거리 육성

국산 자포니카종 990톤 생산·출하
양식수협 위판 322억원 전국 3위
지역 농특산물 연계 먹거리 발굴
"관광 견인하고 경제 활성화 노력"

민물장어의 전국 주요 생산지 중 하나인 영암군이 전남 최초로 민물장어 브랜드화와 지역 대표 먹거리 육성에 나섰다.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 오는 12월까지 '영암 장어 브랜드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 것.

14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역 민물장어 양식업은 허가 33개소, 면적 15만702㎡ 규모로 2023년 12월 말 기준 민물장어양식수협 위판 실적은 990톤, 위판고는 322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북 고창군, 영광군에 이어 전국 3위에 해당한다.

월출산국립공원으로 대표되는 지역의 청정환경에서 한국산 자포니카 종만 생산·출하되는 영암 민물장어는 두터운 육질과 쫄깃한 식감으로 전국 식도락가들의 별미 음식 목록의 윗자리에서 늘 빠지지 않는 식재료다.

영암군은 앞으로 수립할 기본계획에 민물장어 브랜드·네이밍, 포장재 디자인 기획, 장어-농특산물 연계 먹거리 제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나아가 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민물장어의 명성에 걸맞은 이름과 조리법에 청정 영암의 이미지까지 더해 소비자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간다는 방침이다.

김준두 영암군 친환경농업과장은 "영암 장어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대표 먹거리로 장어를 부각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 영암 장어가 지역 관광을 견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영암=한교진 기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영암군, 예방교육 등 홍보

영암군보건소가 가을 농번기를 맞아 10월 말까지 진드기 매개 감염병 피해가 없도록 찾아가는 예방교육과 예방수칙 홍보에 나섰다.

14일 영암군보건소에 따르면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야외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집중발생해 가을철 예방 관리 강화가 필수다.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는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이 있으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치명률이 20% 내외여서 예방수칙 준수와 적기 치료가 중요하다.

예방을 위해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농작업 등 야외 활동 시 △긴옷·긴바지·모자 등 갖춰 입기 △기피제 뿌리기 △풀숲 피하기 △야외 활동 후 털고·씻고·빨래하기 등이다.

영암군은 마을경로당 200개소를 선정해 예방수칙 안내, 기피제 배부 등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나아가 각종 행사장에서 캠페인에 나서고 마을방송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 등도 추진 중이다. 영암=한교진 기자

지난 10일 진도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들이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건강 포토존을 설치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상담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보건소, 정신건강의 날 홍보관 운영

진도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난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11일까지 이틀간 노인복지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앞에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관을 운영했다.

14일 진도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따르면 '세계 정신건강의 날'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정신건강연맹(WFMH)이 지정한 날이다.

진도군 보건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정신건강의 날 기념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마주해요 - 정신건강은 마주하면서 시작합니다'라는 주제로 마음건강 포토존을 설치했다.

룰렛 퀴즈 이벤트를 진행해 방문객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고 스트레스 검사, 터치마인드 앱 설치와 기능 안내, 정신건강 서비스 홍보 또한 진행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무안군,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

무안군은 무안읍 성남리 마을회관을 시작으로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키오스크, VR, 각종 헬스케어 등 최신 디지털 체험 기회와 무인 음식 주문, 스마트폰 활용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군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전라남도와 함께 디지털배움터의 에듀버스를 운영하여 디지털 소외계층이 있는 곳으로 방문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축제, 행사, 전통시장 등에서도 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광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군민이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진일보
@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강진군, 고품질 묵은지 생산… 소비자 신뢰도 향상 '노력'

"생산·유통 과정 관리 철저"

강진군이 최근 지역 특산품인 묵은지의 위생·품질과 제조 과정 관리를 강화하며 전통의 맛을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14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위생관리와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목도가 높아짐에 따라 묵은지 품질분석 용역을 발주, 관내 묵은지 제조·판매 영업등록을 마친 생산업체의 31개 시료를 전남바이오진흥원으로 보내 관능 평가 및 장비 활용 분석(ph·염도·산도)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업체별 분석자료를 반영해 더욱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제조 레시피를 개선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묵은지 대량 유통·판매를 위한 법인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HACCP 인증 시설구축에 아낌없이 지원했다. HACCP 인증 시스템 도입으로 생산·유통·판매 과정의 철저한 위생 및 품질 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맛 좋은 상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생산자는 제3자 대량판매가 가능하게 돼 소득 또한 증대했다.

강진군은 비영리 단체인 강진묵은지 사업단을 구성해 매월 정례회를 개최, 시장정보와 묵은지 제조 및 위생, 품질향상 노하우 공유와 함께 고객응대 교육을 실시해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묵은지는 지역의 청정 자연환경과 전통적인 제조 방법이 결합된 건강에 좋은 발효식품으로 특유의 깊은 맛과 풍미가 살아있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며 "묵은지 생산·유통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품질과 위생에 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해남군,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진행

해남군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지역 내 4개 초등학교, 4~6학년생 200여명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은 미래의 꿈나무 초등학생 어린이들에게 성실 납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세금의 중요성을 심어주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희망 수요조사를 받아 4개 학교를 선정, 해남동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송지초등학교, 화산초등학교, 마산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흥미로운 세금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강사는 일선에서 세무 업무를 직접 맡고 있는 김삼남 해남군 세정팀장이 영상 자료와 돌발퀴즈 등을 활용해 세금의 종류, 군에서 세금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성실 납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어린이들이 세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학습만화인 '세돌이 세순이와 함께 떠나는 지방세 여행'도 함께 관람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무안군, 물 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수질 향상 노력 공로 인정

무안군은 지난 10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5회 물 산업미래 비전 포럼 및 전시회에서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수질 향상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물 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물 산업미래 비전 포럼 및 전시회는 환경타임즈와 환경방송(GKBS)이 주최하고 국회물포럼,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이 후원하는 대표적인 박람회로 전국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기업 등 이 참가했다.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는 2020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무안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협약을 맺고 노후 상수관로 교체공사 등 효율적인 상수도 공급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있으며 IT기반의 실시간 관망 모니터링을 통해 수질사고 예방 및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과 수질개선 등 모든 노력을 다해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해남군, 럼피스킨 예방백신 접종
4개월령 이상 소 4만4991마리

해남군은 지난달 26일부터 1차 송아지 럼피스킨 병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접종 대상은 4개월령 이상 소 1347농가 4만4991마리이다.

지난 6월과 8월에 접종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 태어난 송아지는 이번 접종에서 제외된다.

50두 이상 소 사육농가에서는 자가 접종을 시행하며 50두 미만 농가는 공수의로 구성된 백신접종반 14개팀 21명을 일제히 투입해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자가 접종 농가는 럼피스킨 백신을 수령 즉시 2~8도로 냉장보관 하고 백신접종 전 기포가 발생하지 않게 충분히 흔들어 고르게 섞어주고 반드시 피하에 접종해야 한다.

백신 접종 전에는 가능한 소를 안정시키고 주위를 조용하게 유지하며 백신 접종 후에는 소의 행동과 사료 섭취 등 건강상태를 관찰해 양질의 사료와 충분한 물을 급여하고 추위나 고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소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세심한 사양관리가 필요하다.

지난해 10월 충남 서산시 한우 농가에서 국내 최초 발생한 소 럼피스킨 병은 전국 107, 전남은 무안과 신안에서 발생한 바 있다. 올해는 경기, 강원 지역 중심으로 3개 시도에서 7건이 발생한 상황이다.

럼피스킨병은 소와 젖소, 물소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피부, 점막, 내부장기에 결절과 고열(41도이상)을 동반한다.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지만 전염성이 높아 확산 방지를 위해 발병 축사 전체를 살처분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구제역과 달리 공기전파는 되지 않지만 흡혈곤충(이집트, 일본 숲모기류, 침파리 등 흡혈파리, 수컷 진드기)에 의해 전파되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함께 오염된 사료, 주사기의 재사용에 의한 전파도 주의해야 한다. 해남=전연수 기자